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 국회 바로 세워야”
신임 사무총장에 김영춘·비서실장에 복기왕 내정
與 부의장에 김상희 “최초 여성부의장으로 최선 다할 것”

박병석 의원(6선)이 지난 5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세 번째 법정시한 내 국회의장 선출이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집단퇴장 속에 치러진 국회의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나서 총투표수 183표 중 191표를 얻어 당선됐다. 임기는 2022년 5월까지다. 개원국회에서 법정시한 내에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은 16대 국회 이만섭 전 의장과 17대 국회 김원기 전 의장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의장은 임기 시작 후 7일째 되는 날에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법에 따라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의장은 당선된 다음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통합당이 이날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강행에 반발하며 주호영 원내대표 의 의사진행 발언 후 집단 퇴장함에 따라 법정시한은 지켰지만 ‘반쪽짜리’ 의장 선거라는 오명을 남겼다. 박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단호히 결별하고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21대 국회의 기준은 국민과 국익이다. 대화와 타협으로 세계의 사랑을 모범적인 케 이민주의를 실현해나가도록 하지”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에는 “2004년 열린우리 당 시절 4대 개혁 입법을 일거에 추진하려다 좌절된 것을 잘 기억할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를 만들어 준 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숙고하시길 권고 드린다”고 조언했다. 야당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신이 야당 정책위의장으로



박병석 의장



김상희 부의장

이명박 정부의 정부지급보조금동의안에 대한 국회 동의를 주도한 것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당의 입장보다 국익을 위해 결정했던 야당에게 더 큰 박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 드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소통은 정치의 중요한 덕목이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이다. 소통하자”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에 3선의 김영춘 민주당 전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도 지난 김 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부산 진구갑에서 통합당

서병수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비서실장에는 청와대 정부비서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복기왕 전 아산시장을 내정하고 공보수석으로 이름이 바뀌는 대변인에는 한민수 현 국회 대변인을 유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류 국회의장에는 김상희 민주당 의원(4선)이 총 183표 중 185표를 얻으며 사상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의장과 마찬가지로 2022년 5월까지다. 김 부의장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고 성평등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최초의 여성부의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키는 세대에게 또 하나의 여성 롤 모델을 보여 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국회는 오늘도 반쪽이 되고 말았다”며 “지난 국회는 잦은 파행과 폭력, 잦은 휴원으로 끊임없이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21대 국회는 과거 국회에 대한 진정 어린 반성과 국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류 부의장으로는 5선의 정진석 통합당 의원이 사실상 추대된 상태이지만 통합당의 집단퇴장으로 표결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뉴스1



본회의장 퇴장하는 통합당...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사진행 발언에서 개의 반대 의사를 밝힌 후 퇴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 “감염병연구소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게 된다. 또 질본 정원은 907명에서 746명으로, 예산은 8171억원에서 6689억원으로 기존보다 줄어들게 되며, 질병관리청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과 조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현재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절회를 요구하자 문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정부·국회, 기후위기 대응 적극 나서야”

226개 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
온실가스 감축·2050 탄소중립 등 촉구

우리나라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도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등 11개 단체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포식은 현재 기후위기 상황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정부와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선포식엔 30개 지역 시장·군수·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김성환·이소영·양이원영·김영배 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비롯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선언문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적극 실현 ▲정부·국회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및 2050 탄소중립 선언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 계획 수립·실현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 극복 위한 제도 마련 및 추진 등이 담겼다. 김홍장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당진시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88%를 에너지 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고 메타리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아우르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과 함께 국내외적인 기후정책 변화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목표를 ‘1.5도 시나리오’에 맞게 상향해 제출해야 한다. 또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에 국가 탄소중립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만큼 정부는 현재 여러 방면에서 기후정책 변화를 요구 받고 있다. 지방자치 분권과 에너지 분권이 그린뉴딜과 연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윤진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에너지 분권과 자치분권을 그린뉴딜에 연계해 지역에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문제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1

이수진 의원 “법관 탄핵 추진할 것”

양승태 사법부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 업무 역량 부족 반박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양승태 사법부에서 받은 인사 불이익이 ‘업무 역량 부족’이었다는 데 반발하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관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하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고, 업무능력 문제로 인사조치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그런 주장들은 제가 입당하며 시작이 됐다. 입당 전에는 검찰이 저를 소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보고 먼저 소환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제가 대법원(재판연구원) 2년차 때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에 대해 비판하겠다고 선언하니 마지막 2년차 때 저를(대법원에서) 인사를 냈다”며 “원래 3년 근무인데 2년 근무만 하고 갑자기 내보냈다. 인사불이익을 준 정황이 많았고, 그때부터(법원행정처에서) 제 업무능력이 부족해 내보냈다는 말을 흘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세력의 인사라 인들이 입을 맞추고 있는 거고 인사권

남용이 바로 직권남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 만큼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연하 판사는 5년 동안 인사실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양승태 대법원장과 독대 하면서 인사를 했던 책임자다. 이런 양반이 나와서 ‘제가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자백할 리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업무 능력이 부족한 인사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동기들에게 물어보라”며 “대법원 연구관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 동기 160명 중 30명 정도가 발탁된다. 11년 근무 평점을 가지고 제가 발탁이 돼 대법원 연구관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2년째에 일을 못하니까 내보내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180석을 이뤄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달라는 뜻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고 밝혔다. /뉴스1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